

오늘 저녁 7시20분 일본 요코하마서 80번째 한일전

손흥민 없는 벤투호, 이강인이 해결사



한국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한일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닛산 스타디움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황의조·황희찬·김민재 등 주축 해외파 대거 합류 불발 첫 출전 정우영 활용법 고심 벤투 감독 “한일전 특수성 이해 약점 공략해 좋은 결과 얻을 것”

안팎의 각종 변수 속에 일본과의 맞대결을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모든 변수를 극복해 좋은 경기를 펼치고, 결과를 얻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벤투 감독은 일본과의 친선경기 전날인 24일

일본 현지에서 화상 인터뷰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러 문제로 명단이 바뀌고 경기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최대한 잘 준비해 나설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후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친선경기에 나선다. 80번째 한일전이다. 시기와 형태를 막론하고 중요성이 큰 일본과의 대결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대표팀의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 이후 모처럼 실전 기회를 잡았으나 공격의 핵심 손흥민(토트넘)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고, 황희찬(라이프치히)은 소속팀이 위치한 독일

작센주의 격리 규정으로 차출이 불발됐다. 황의조(보르도), 이재성(홀슈타인 킬), 황인범(루빈 카잔), 김민재(베이징 궈안) 등도 소속팀의 반대나 부상 등 여러 이유로 소집할 수 없었다. 명단 발표 이후에도 중아리를 다친 윤빛가람(울산) 등 이탈자가 발생해 대체자를 구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을 비롯해 못 온 선수가 많다. 공격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차출할 수 없는 선수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소집된 모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역할을 잘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집에 돌연인 유럽파 이강인(발렌시아), 정우영(프라이부르크)에게 시선

이 쏠린다. 벤투 감독은 이들에 대해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이다. 특히 정우영은 기간은 짧지만, 처음으로 뽑아 훈련을 지켜볼 시간을 갖게 돼 좋다”면서 “내일 두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살펴보고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을 온전히 가동하지 못함에도 결과로 내보여야 하는 한일전의 특수성은 대표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한국은 일본과 지난 79차례 맞대결에서 42승 23무 14패로 크게 앞서 있고, 최근엔 3경기 무패(2승 1무)를 기록 중이다. 벤투 감독은 “라이벌 관계에 집중하기보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전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한일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인 일본에 대해선 “압박이 강한 팀이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면서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 공략할 부분을 잘 파악하겠다”고 승리 의지를 다졌다. 코로나19 방역도 경기력만큼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터라 대표팀은 방역 대책을 한층 단단히 마련했다. 벤투 감독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모든 프로토콜을 다 준수하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시험무대 끝 ... 이제부터 진검승부”

리그 개막후 6경기 1승1무4패 ‘최약체’ 평가 뒤집는 경기력 선배 다음달 4일 인천 상대 승점 사냥 김호영 감독 “이제 이길 때 됐다”

폭풍같은 3월을 보낸 광주FC가 뜨거운 4월을 위해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 줬다. 지난 20일 제주원정을 마치고 ‘휴가’를 보냈던 광주 선수단이 24일 안방으로 복귀했다.

달콤한 휴식을 끝낸 선수들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축구센터에 모여 훈련을 재개했다. 선수들은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하면서 유쾌한 분위기에서 몸을 풀었다.

이승민·이중서가 레크리에이션 게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윤보상·신승훈 두 골키퍼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선수단에 커피를 돌리게 됐다. 레크리에이션 훈련이 끝난 뒤 경기조 선수들은 회복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조율했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들은 미니게임을 하면서 김호영 감독에게 어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 그대로 폭풍 같은 3월이었다. 2월 28일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2021시즌을 연 광주는 3월 6일 울산(홈)전을 시작으로 10일 대구(원정), 13일 전북(홈), 17일 서울(원정), 20일 제주(원정)까지 15일 동안 5경기를 연달아 치렀다.

강행군을 펼친 광주는 A매치 휴식기로 천금 같은 시간을 얻었다. 숨을 고른 광주는 오는 4월 4일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용구장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스쿼드가 얇은 광주 전력상 힘겨운 3월 일정이었다. 상대도 쉽지 않았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우승후보’ 울산, 기성용으로 중무장한 서울 등과 초반부터 세계 불었다.

결과는 1승 1무 4패(승점 4), 대구원정에서 4골을 몰아치는 등 6골을 넣었지만 8실점을 기록했다. 결과만으로 보면 아쉬운 성적이지만 광주는 ‘최하위 후보’ 평가를 뒤집는 경기력을 과시했다. 승리를 기록한 ‘적장’ 들조차 “쉽지 않은 승부였다”며 광주의 거침없는 플레이에 혀를 내둘렀다.



광주FC의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헤이스가 24일 광주축구전용센터에서 드리블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호영 감독은 “시험무대가 끝났다. 이제는 진검승부다”며 4월을 준비하는 각오를 이야기했다. 4월 시작이 중요하다. 안방에서 인천을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서는 광주는 2일 휴식 뒤 7일 수원 FC와 홈경기를 치른다. 강등 후보로 꼽히는 상대들을 연달아 만나게 되는 만큼 ‘잘 싸우는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 외국인 선수, 엄원상이 4월 승리 행진의 키워드다. 김호영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한 만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엄원상은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서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경기 준비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22세 카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주는 4월 진격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었다.

지난 17일 세르비아 국가대표인 중앙 수비수 알렉스를 영입하며 수비를 강화했고, 18일에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헤이스를 품으며 광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174cm·83kg의 헤이스는 빠른 스피드와 함께 드리블 돌파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 침착한 마무리와 날카로운 패스, 뛰어난 슈팅을 갖췄으며 펠리페와의 인연까지 있어 빠르게 새로운 팀에 적응했다. 부상병들의 복귀도 준비되고 있다. 어깨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쉬어갔던 여봉훈과 이한샘도 출격을 앞둔 만큼 김호영 감독은 7라운드 인천경기에 앞서 2-3차례 연습 경기를 갖고 승리를 위한 최강 조합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크쇼로 보는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감독·대표선수 등 인터뷰 사전 녹화... 다음달 2일 오후 6시30분 공개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2021 KBO 미디어데이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사전제작 리얼리티 토크쇼로 진행된다. KBO가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특별한 미디어데이를 준비했다. 지난해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 언택트 라이브 미디어데이에 이어 올해는 토크쇼 형식의 스페셜 미디어데이가 펼쳐진다. KBO와 10개 구단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각 팀 홈 구장, 원정 숙소 등에서 선수단 현장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다. 29일에는 특별 스튜디오에서 특별 MC와 패널들이 참석해 토크쇼 녹화를 한다. 사전 인터뷰는 한국야구기자회 선정 질문을 통해 감독, 대표선수, 신인, 외국인 선수 등 다양한 선수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터뷰 등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리얼리티 토크쇼에 맞게 1차 편집

될 예정이다. 토크쇼 출연진과 특별 스튜디오 장소는 녹화 당일 발표된다. 완성된 리얼리티 토크쇼 스페셜 미디어데이는 KBO리그 개막을 하루 앞둔 4월 2일 오후 6시 30분 공개된다. SPOTV와 MBC SPORTS+에서 방송되고 네이버, 카카오, wavve, U+프로야구, Seezn을 통해 인터넷·모바일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스페셜미디어데이는 제한된 시간에 감독과 대표선수밖에 만날 수 없었던 기존 플랫폼에서 벗어나 각 팀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본 방송에 소개되지 못한 인터뷰 영상 및 에피소드는 KBO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이언맨’ 윤성빈, 업그레이드 성공적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월드컵 등 4개 대회 2차례 포디움 올라

“베이징으로 가는 준비과정일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봅슬레이·스켈레톤 코리아컵 겸 국가대표 선발전이 치러지는 24일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만난 ‘아이언맨’ 윤성빈은 2020-2021시즌 성과에 대해 특유의 건조한 말투로 이같이 평가했다. 윤성빈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총 4개 대회에 출전해 2차례 포디움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기를 통째로 거르고 총 8차까지 치러지는 월드컵 대회 중 6-8차에만 참가한 점을 고려하면, 좋은 성과라 할 만하다. 하지만 윤성빈은 입상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는다. 윤성빈에게 중요한 건,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회 2연패를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폭발적인 순발력을 내는 윤성빈의 하체는 2018년 평창에서 그를 아시아 첫 스킨슬레톤 올림픽 메달

리스트로 만든 최고 무기다. 윤성빈은 스타트 속도를 더욱 높이고 몸에 변화를 줬다. 하체와 상체 훈련의 비중을 ‘60-40’ 정도로 두고 훈련하던 윤성빈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비중을 ‘60-50’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근육량도 늘었다. 주향 스타일과 썰매 세팅에도 여러 차례 변화를 줬다고 한다. 이런 ‘실함’의 성과가 올림픽 2연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는 질문에 윤성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이번 선발전을 마지막으로 2020-2021시즌은 끝나지만, 윤성빈은 비시즌 개인 훈련으로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간다. 다음 시즌 월드컵은 11월 초 시작한다. 이때부터 내년 2월 올림픽까지 한 시즌을 소화할 몸을 비시즌 동안 만들어야 한다. “베이징 이후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베이징만 바라보겠습니다.” 자신의 3번째 올림픽을 약 11개월 앞둔 윤성빈의 짧고 굵은 각오다. /연합뉴스